고원홍매 총림을 이루었네

〈古院紅梅〉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三冬安居幾用工(삼동안거기용공)
惺惺著意大疑中(성성착의대의중)
西風忽起庭前樹(서풍홀기정전수)
隻鶴高飛萬里空(척학고비만리공)

삼동 결제하고 공부에 얼마나 힘썼는가?
화두가 성성하여 크게 의심하는 가운데
뜰 앞 전나무에 홀연히 서풍이 불고
한 마리 학은 만리장천을 오른다.

전국(全國) 선원대중(禪院大衆)이 삼동결제(三冬結制)를 성만(成滿)하고 이제 해제를 하게 되었도다. 모두가 산문출입을 삼가며 오직 화두타파의 일념으로 정진해서 삼계대도사 사생자부의 안목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도다.

이제 사생의 자비로운 어버이로 역량을 갖추고 산문을 나서게 되었으니 이는 만 중생의 복전이요 경하할 일인지라. 소나무 춤추고 개울물은 찬탄의 노래를 부르도다.

이러한 일이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기에는 외호대중의 공덕이 지대하고, 최상승 수행법을 만난 선근인연이 함께해서 가능해짐이로다.

포단에 오뚝이 앉아 정진함은 무명을 타파해서 청정본연의 지혜덕상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요, 구름 흩어진 하늘의 달을 빛나게 함이로다.

산문을 나서는 수행자들이여!

세간의 여러 인연들이 영산(靈山)의 봄소식을 묻는다면 어찌 답하려 하는가? 그대의 걸망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가?

삼동을 견딘 보리 싹은 힘차게 솟고 보경호 고요한 물엔 영축산이 장엄하게 담겨있다 하리라.

平生志願未成功(평생지원미성공)
歷盡艱難始遇通(역진간난시우통)
金剛寶壇重上見(금강보단중상견)
古院紅梅已成叢(고원홍매이성총)

평생 세운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힘을 다해도 어렵더니 비로소 통하네
금강보단에서 거듭 우러러보니
옛 도량 홍매는 이미 총림을 이루었네.

마음의 달이 홀로 원만히 밝도다

태고종 종정 운경 상보 대종사



始覺本明(시각본명)
雪消春至(설소춘지)
萬法歸一(만법귀일)
心月孤圓(심월고원)

비로소 깨달음은 본래 밝은 것이니,
눈이 녹듯 봄이 이르도다.
일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마음의 달이 홀로 원만히 밝도다.

삼동(三冬) 긴 결제가 원만히 회향되고 동안거 해제의 날을 맞았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선방과 각 도량에서 흘린 정진의 땀과 공덕이 법계에 두루 회향 되기를 축원합니다. 추위 속에서 몸과 마음을 단속하며 한 생각을 관조한 그 시간은 곧 스스로의 불성을 밝히는 귀한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이란 특별한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 있을 때만 선(禪)이 아니라, 서고 걷고 말하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연속입니다. 한 생각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한 생각 사라짐을 비추는 것이 곧 참선이며,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正念)의 삶입니다.

결제 기간 동안 우리는 탐진치의 번뇌를 살피고, 습기를 다스리며, 화두와 염불, 간경과 수행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해제를 맞이한 지금 더욱 경계해야 할 것은 방일(放逸)입니다. 결제가 풀렸다고 하여 마음까지 풀어버린다면, 그동안 쌓은 공덕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제는 곧 새로운 정진의 시작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중략〉

春到禪林雪自消(춘도선림설자소)
一輪心月照寥寥(일륜심월조요요)
解制還須勤正念(해제환수근정념)
行深處處是菩提(행심처처시보리)

봄이 선림에 이르니 눈이 저절로 녹아 사라지고
한 둥근 마음의 달이 고요히 법계를 비추도다.
해제하였으나 다시 모름지기 바른 마음챙김에 힘써야 하며
깊이 행하는 곳마다 그 자리가 곧 보리이로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돌사람이 불조관을 타파하다

해인총림 방장 학산 대원 대종사



佛紀二五七十 乙巳年 正月 十五日
海印寺 冬安居 解制法語

陞座拄杖三下云 會麼?

[법상에 올라 묵연히 앉았다가 주장자를 세 번 치고 들어 보이고 이르되] 아시겠습니까?

九旬結解爲何事 石人打破祖師關
明月淸風是吾家 往來衣食溢鉢盂

백일 결제 해제는 무슨 일을 함인가?
돌사람이 불조관을 타파하니
청풍명월이 다 나의 집이요
가고 옴에 옷과 밥이 발우에 흘러넘침이로다.

금일 解制 大衆께서는 도리어 아시겠습니까?

밝은 것과 밝음이 없는 것은 범부 중생의 견해요, 지혜 있는 자가 了達하면 그 성품이 둘이 없음이라. 둘이 없는 성품이 곧 실상이라.

실상자는 범부에 처해 있어도 멸하지 않고, 현성에 처해 있어도 더하지 않네.

번뇌에 머물러도 어지럽지 않으며, 禪定에 居해도 고요하지 않으며, 단견도 아니요, 상견도 아니라.

오는 것도 가는 것도 아니요, 중간과 그 안과 밖에도 있지 않음이라.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금일과 같다.

항상 상주해서 변천이 아니다.

오직 목전사일 뿐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道라 하네.

금일 해제 대중이여 어제는 어린 아이를 짓고, 오늘 아침은 나이가 이미 늙었음이로다.

(3 8 9)를 밝히지 못하면 옛 황제의 길을 밟기 어렵다.

손으로는 황하강과 하늘을 녹이고, 다리로는 수미산을 걷어차서 꺼꾸러지게 함이라.

떠 있는 인생이 꿈과 같은 몸이고, 사람의 목숨이 벌써 저녁이라, 보존하기 어렵도다.

천당과 지옥이 다 마음으로 짓는 바이니, 가고 옴에 부딪히는 곳마다 그를 만나서 전체의 기틀에서 홀로 벗어났나니, 정히 이런 때를 당하여 어떠한가?

백운은 본시 무심해서 물건과 온갖 것이 한가로이 허공에서 출몰함이라.

다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雖然萬里無寸草
往來噢食無沾哌
上行買賣不饒讓
好物從來價自殊

비록 그러하나, 만리에 마디 짧은 풀 한 포기조차 없고, 가고 옴에 밥을 먹을 때 입술을 적시지 않는다.
위로 행해 사고 팔 때 넉넉히 양보하지는 않으나, 좋은 물건은 종래로 값이 스스로 다르니라.

喝하시고

拄杖三下 下座하시다.

만 가지 경계가 한마음에 들어있다

금정총림 방장 여산 정여 대종사



오늘은 을사(乙巳)년 동안거 해제 날입니다.

석 달 동안 용맹정진해서 선방에서는 확철대오 한 납자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율원에서는 율장 정신으로 청정하게 수행하시고,

강당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속 깊이 새겨서 성불의 발판을 삼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는 결제 해제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해제 동안에도 자신의 본분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단히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竹影掃堦塵不動(죽영소개진부동)
月穿潭底水無痕(월천담저수무흔)

대나무 그림자가 돌계단을 쓸어도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달빛이 연못 바닥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

달빛에 비친 대나무가 바람에 일렁이면서 계단을 쓸어도 계단에는 먼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달빛이 연못을 비추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도를 닦는 수행자의 마음자리는 온갖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야 본성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계가 눈앞에 펼쳐지더라도 근본 자성 자리는 미동도 하지 않아야 도를 닦은 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인의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계를 영원한 실체로 보지 않고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이 보기 때문에 세간 경계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중략〉

근본 마음 자체는 탁 트여서 파란 하늘과 같은 것이다.

맑은 마음 그 자체에 미움도 없고 성냄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편견 된 마음으로 밉고 곱고 깨끗하고 더럽고 온갖 마음에서 차별 경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하늘 바탕은 때 묻거나 물들지 않는 늘 맑고 如如(여여)한 것이다.

生死(생사)와 涅槃(열반)이 끝내는 두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생사가 있지만 마음을 깨달은 성인의 경계에서 바라보면 생사와 열반이 本空(본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생사가 열반이요 열반이 곧 생사입니다.

萬境無限하여 咸入一心之內니라.
만 가지 무한한 경계가 모두가 한마음에 들어있다.

눈을 뜨고 바라보는 모든 경계가 모두가 자신의 한마음에서 분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만든 경계에 속아서 울고불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고,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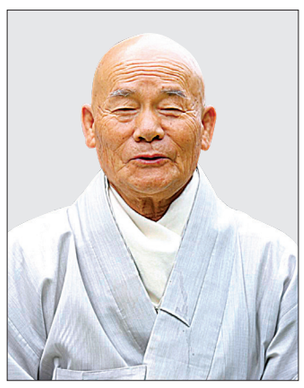
진정한 해탈은 그 무엇을 갈구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이끌리지 않으며 어디로 가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으며 일상생활 그대로 如如(여여)해서 감에 감이 없고, 옴에 옴이 없습니다.

머물고 행하는 그대로 一如(일여) 해서 걸림이 없습니다. 마치 구름 벗어진 파란 하늘과 같은 것입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소가 돼도 코 꿸 구멍이 없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우송 대종사



삼천대천세계가 시아(是我), 이놈, 이 자체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천상천하 산하대지 한 덩어리 이뭘까?

수미산 마나슬로바, 백두산 천지, 덕숭산 鶴池, 모두가 보살의 심장입니다.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내 너를 위해! 시원시원 터진 보살행, 병오년 적토마 주인 보살행

홀문인어무비공(忽聞人語無鼻孔)
돈각삼천시아가(頓覺三千是我家)
유월연암산하로(六月鷰巖山下路)
야인무사태평가(野人無事太平歌)

'소가 돼도 코 꿸 구멍이 없다.' 이 말에 경허 스님은

삼천대천세계가 시아, 이놈이라는 것을 돈각했습니다. 몰록 깨달았습니다.

연암산 아랫길이 훤해졌습니다. 들사람 한가하다, 태평가로다.

모든 생명의 소원, 쉬고 싶다.

至心바다에 푹~신 쉬고 싶습니다. 아, 세상살이 코가 꿰었었구나!

다 버리고 성 넘어 새벽별에 부처님은 확철대오 하셨습니다.

부처님 성도(成道) 납월 팔일

납월 팔일은 무르익어 무르익어 겨울 안거 절정입니다.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중략〉

관세음보살~ 하면 다 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가슴이 흡족해집니다.

해제하면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그 자리를 볼 때까지 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자대비 사랑 관세음보살~ 한 세상 놓고 관세음보살~

점점 한가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대자대비 화두에 푹신 젖어 세상이 손안에 구슬인가? 자유자재 가벼워집니다.

내 얼굴 재밌어 보이는 얼굴로 자꾸 바꾸어져 갑니다.

눈앞에 두두 일체가 조도(助道)의 벗이요, 상주일체가 부처님

작은 일상이 생명의 신바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옳게, 맞게! 살판나는 신바람

밀밀회광이자간(密密廻光而自看)하라.

돌이켜 돌이켜 체껴라. 결코 딴데 있지 않네.

이뭘까에 와 있으니 구경(究竟)을 다시 어디서 찾을 것인가?

적적이빈주(寂寂離賓主)
요요절색공(寥寥絶色空)
공산풍우다(空山風雨多)
화락무인소(花落無人掃)

역력해서 빈주가 없네. 손과 주인이 따로 없네.
고요해서 색공이 끊어져 한 덩어리 일색이네.
산천에 비바람 잦아 세상사 끝날 날이 없어도
꽃 떨어져 쓸 사람 없어도 피고 지고, 피고 지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보고 듣는 이 자체, 이~뭘까?

마하 반야 이~~ . 바라밀 야! 이~~~야!

경허 스님은 부시하물(復是何物) 다시 이뭘까?

그리고 붓을 던졌습니다.

법어 전문 바로가기

3월 3일(음력 1월 15일) 전국 총림과 선원에서는 을사년 동안거 해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에 동안거 해제 법어를 게재합니다. 〈편집자 주〉